동북아시아의 삼자 협력: 기대와 한계점

한·일·미 차세대리더 삼자대화 컨퍼런스 레포트

줄리아 쿠니코, 브래드 글로서만, 존 K.와든 편집

PACIFIC FORUM CSIS

YOUNG LEADERS

이슈 & 인사이트
제 15 권 1 호

대한민국, 서울
2014 년 11 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아태지역 자치부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이하 태평양포럼 www.pacforum.org)은 호놀룰루에 소재해있다. 태평양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저명한 학계, 정부, 재계의 리더들의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정치, 안보, 경제, 비즈니스, 해양정책 관련 현안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1975 년에 설립되어 환태평양 지역의 연구기관들과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관점을 하나로 모으고, 프로젝트 결과와 권고사항을 해당지역의 주요 언론, 정부,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차세대리더 프로그램 (영리더스프로그램, Young Leaders Program)

차세대리더 프로그램은 젊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태평양포럼이 주최하는 정책 대화와 회의에 초대한다. 본 프로그램은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세대와 기성 전문가들의 견해 교환을 이끌어내며, 리더로서의 유연한 역량 강화, 다양한 배경에서 온 젊은 전문가간의 소통을 장려하고 모든 참여자로 하여금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를 하고자 한다. 차세대리더들은 참석하는 회의 안건에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회의가 개최되는 도시에서의 추가 부수적인 프로그램과 정부 고위층, 전문가들의 멘토링 또한 차세대리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차세대 프로그램은 정부와 자선단체의 후원과 각 참가자들을 후원해주는 대학, 기관, 단체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포럼 홈페이지 www.pacforum.org 를 참고하거나 차세대리더 프로그램 디렉터, 줄리아 쿠니코(julia@pacforum.org)에게 문의할 수 있다.

목차

감사의 글 ---------- iv
SKC 최신원 회장님의 메세지 ---------- v
들어가는 말 ---------- vii
회의 및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결과와 고찰점 ---------- 1
한국팀 회의보고서 ---------- 5
일본팀 회의보고서 ---------- 7
미국팀 회의보고서 ---------- 9
마우이와 서울 회의 결과 비교 ---------- 11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첫번째 장 (2014 년 가을의 어느 날) ---------- 13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첫번째 장 문제 ---------- 14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긴급보고 (폭발로부터 48 시간 후) ---------- 15
추가 문제 ---------- 15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두번째 장 (폭발 후 일주일 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날) ---------- 17
부산항 위기상황 시나리오: 두번째 장 문제 ---------- 18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한국팀 시나리오 배경지식 ---------- 19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일본팀 시나리오 배경지식 ---------- 25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미국팀 시나리오 배경지식 ---------- 29

감사의 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과 저 줄리아 쿠니코는 이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중한 분들과 기관의 후원에 감사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아름다운 회의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SKC 와 최신원 회장님의 너그러운 후원에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세한 배려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SKC 직원 임숙지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기반을 쌓고 중요한 연결책을 형성하여 준 니콜 포레스터와 편준범,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을 이끌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존 K. 와든, 그리고 마우이 삼자협력 회의와 본 회의를 위한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준비작업에 참여해준 차세대리더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배경이 좀 더 신빙성있게 도움을 주신 전문 비평가 브래드 로버트와 노부마사 아키야마, 에반스 레비레, 봉용식, 쉐인 스미스, 그리고 차세대리더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신 김태호, 에드워드 동, 켄지 카나수기, 이정민, 유이치로 유이치로, 손기영 전문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서울 회의에 참가해주신 차세대리더들과 태평양포럼 동문회분들께서도 신선하고 지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차세대리더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가능케 해준 사사카와 평화 재단과 켈리 펠로우쉽 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the Worldwide Support for Development/하루히사 한다 펠로우십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Junlia Cunico 줄리아 쿠리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차세대리더 프로그램 디렉터

SKC 최신원 회장님의 메세지

우선 제일 먼저 지난 11 월에 차세대리더들을 위한 삼자협력 대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태평양포럼 랄프 코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 자리를 빛내주신 주한미국, 주한일본대사관분들과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미·일 차세대 리더들을 서울에서 환영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최근들어 세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자 서울에서 모인 것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 나라 지도자들이 모인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로드맵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더 나은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태지역 나라들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일은 동북아 정세의 중심에 있으며, 세 나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은 지역내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 차세대 리더들은 함께 삼자협력 관계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저의 기대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이틀에 걸친 토론은 차세대리더들로 하여금 기존 담론에서 벗어난 넓은 시각을 갖고, 다양한 입장에서 국제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차세대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삼자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이 될 차세대리더들이 대화의 중요성을 항상 숙지하길 바랍니다.

저는 태평양포럼의 한 멤버로서 앞으로도 차세대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한미일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평양포럼의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K 그룹은

한국에서 두번째로 큰 기업으로 선경그룹에서 1997 년에 SK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SK 홀딩스는 2013 년 포춘(Fortune)에서 선정한 글로벌 500 대 기업(Fortune Global 500) 에서 56 위를 차지하였으며 SK 그룹에는 전세계 113 개의 사무소에서 70,000 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화학, 석유, 에너지가 주요 산업분야이며, 한국에서 가장 큰 무선통신회사인 SK 텔레콤 또한 SK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SK 그룹은 건설, 해운, 마케팅, 시내 전화, 고속인터넷, 무선브로드밴드 와이브로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하이닉스를 인수합병하여 SK 하이닉스를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사업의 폭을 넓혀왔다.

SKC 는

1976 년에 창립된 SKC 는 SK 그룹의 자회사이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며 고객을 꿈을 실현시켜 온 SKC 는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에서 나아가 친환경 글로벌 Green Company 를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PET 필름을 자체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광학용, 태양전지용,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필름사업과 대규모 PO/SM 공장을 국내 최초로 가동하고 세계 최초로 친환경 HPPO 공법을 적용하여 아시아 폴리우레탄 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는 화학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전지소재 및 LED 소재, 차세대 파워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 무기소재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며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들어가는 말

한미와 미일 동맹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과 일본이 경제발전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미국과 두 나라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쟁확장억지력, 즉 핵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정치적 의무를 지고, 미합중국은 두 어느 나라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공격까지도 불사하는 군사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잠재적인 적국을 도발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이러한 동맹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다.

태평양포럼은 Track II(비정부간 대화)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미국이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으며 지난 몇년 동안 각 나라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차이, 전략적 우선순위, 국방정책등을 알아보는 한미, 미일 전략 대화를 여러차례 개최해왔다. 이러한 Track II 교환을 통해서 참가자와 각국 정부의 오해를 줄일 수 있었고, 이는 미국이 2010 년 한국, 일본과 맺은 Track I(대정부 대화) 확장억지력 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태평양포럼은 이러한 논의과정에 차세대리더들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차세대리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젊은 전문가들은 한미, 미일 전략적대화를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그들의 참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과거 냉전 기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전문가 참가자들과 자주 상반되는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며, 두번째,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단계에서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울 기회를 갖는다.

비록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대화 모두 미국과 동맹국간의 상호기대와 정책노선을 일치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삼자협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는 두 동맹국들로 하여금 삼자협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저돌적으로 변하는 중국과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마주하면서, 세 나라의 안보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더 폭 넓은 삼자외교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감정적 장애물이 그 협력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태평양포럼은 동북아 삼자협력의 중요성과 장애요소를 이해하며, 2013 년에 대량 살상 무기 전진 대응 시스템 프로젝트(the Project on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for Countering WMD, PASCC)와 국방위협감소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DTRA)의 후원을 받아 한미일 확장억지력 삼자협력 대화를 주최하였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삼자협력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삼자협력의 이점은 무엇이 있고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014 년 7 월 23~24 일에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정책 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애매한 상황에 한·미·일 세 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시험하는 테이블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참가하였다. 시나리오의 두번째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해군기지에 보복공격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북한이 그 대응으로 남한의 외딴 농지를 해안포사격함으로서 수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또한 북한은 동해안에서 핵폭발 실험을 하는 등 강수를 두었다. (핵실험에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매단계마다 한국, 미국, 일본 국적자로 이루어진 각 세 팀은 각자의 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상의하며 조언을 나누었다.

한·일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대화에서도 차세대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17 명의 태평양포럼 차세대리더들이 토론을 관람하고 테이블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참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차세대리더 팀이 전문가 팀처럼 국적별로 나누기보다 따로 한 팀을 구성하여 한·미·일 정부에 각각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천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팀의 권고사항은 전문가 팀과의 세대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조군으로 구분되었다.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항에 있어서 차세대 팀이나 전문가 팀이 공통된 입장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가 팀에서는 전쟁억제력을 재확립하고자 긴장 상태의 고조를 고집한 반면, 차세대 팀은 사태악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염려하는 편이었다.

마우이 회의에서 한 테이블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은 가상적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삼자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고, 차세대 참가자로 하여금 시급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법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해줬다는 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후에 태평양포럼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참가한 차세대리더들에게 차후 열릴 차세대리더 행사에서 쓰일 그들 스스로 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쓰도록 하였다. 마우이 회의가 끝나고 차세대리더 팀은 한미일 위기 상황 시나리오와 각각 나라에 해당되는 시나리오와 배경지식을 작성하였다.

마우이 회의로부터 네 달 후, 태평양포럼은 2014 년 11 월 12 일에서 14 일까지 SKC 의 후원을 받아 서울에서 제 1 차 한·미·일 차세대리더 대화를 개최하였다. 약 35 명의 한국, 미국, 일본 차세대 전문가들과 선별된 전문가들이 총 이틀에 거쳐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마우이회의에서 전문가급 대화에

참석했던 차세대리더들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이블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태평양포럼이 앞으로 개최될 수많은 차세대리더 아시아태평양 안보 대화의 첫번째 요약본이며, 회의 자료와 회의에서 도출된 중요한 고찰점 그리고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나리오와 그 배경지식,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회의 및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결과와 고찰점

존 K. 와든 작성

세 팀 모두 한·미·일 협력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비우호적인 관계가 가장 큰 장애물임에 동의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한, 삼자협력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다.

비슷한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경색되어 있다. 서울 회의 중 일본측 참가자의 한일 역사관련 발언이 한국측 참가자의 격앙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두 나라의 긴장상태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 각 나라에서 시행된 설문에 따르자면 두 나라 모두 전에 없는 낮은 적대감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일 관계의 진전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관계진전을 향한 열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염려되는 부분은 악화되어 가는 여론이다. 두 정부는 각국의 정책을 좀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각 정부 홈페이지 및 공식성명을 상대국의 언어로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 방법이 그 방법 중 하나이다.

각국의 고위의사결정자 및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개개인의 소통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역사 문제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 두 나라간의 관계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합의 도출에 실패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대신에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정보교환을 제안하였다. 몇몇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국와 일본이 더 밀도있는 토론을 나누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참가자들의 많은 수가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최소한 여론을 자극하려고 하지 않아야함을 강조했다.

한일수교 50 주년이 되는 해인 2015 년은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일본측 참가자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할 공식성명이 일본의 우경파 목소리를 진압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한국과 미국 참가자들은 아베

총리의 성명으로 한국의 여론에 극적인 반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제한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반면, 한국 참가자들은 일본의 국방정책 변경노선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실직적인 정책대화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두단계로 이루어진 시나리오를 포함한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에 참가했다. 시뮬레이션은 부산항에 정박해있던 일본 상선이 침몰하면서 그 첫번째 장이 시작되었다. 북한과 연관된 테러집단이 부산항 테러를 그들의 공로라고 치켜세우면서 한국과 미국에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북한 정부가 그 테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몇가지 정황증거가 드러났다. 테이블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과와 고찰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장에는 한미일 모두 테러 공격에서 발생한 사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상황파악을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각 팀은 군사경계조치를 격상시켰지만 테러공격을 북한과 연관시켜 보복을 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팀은 한국에 인명 수색 및 구출, 지뢰 제거, 유출된 기름 제거, 폭발현장 점검 및 조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해왔다. 한국과 미국 참가자들은 일본이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일본팀의 정중한 제안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마우이에서 전문가급 테이블탑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각 팀은 북한과 직접 소통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로 테러에 연관되었는지 파악하고 사태 완화를 위해서 노력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두번째 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소식통이 테러리스트 조직이 아닌 북한 정부가 잠수정 두 척으로 일본배를 침몰시켰음을 확인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북방한계선쪽으로 포탄을 발사, 한미일 세 나라에 핵위협을 가하면서 핵무기 무장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한국군의 구축함이 부유수뢰에 맞아 약간의 피해를 입고, 훈련을 참관하던 일본군의 구축함은 어뢰에 맞아서 28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구축함은 근해에 있던 북한의 잠수함 두척을 탐지하고 격추시켰다. 한시간 후, 공해(公海)에서 잠수함 기지로 돌아가는 북한의 잠수함 네 척이 추가로 감지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서로 다른 입장과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고수함으로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미국팀은 북한의 잠수함 두척을 격추시킨 것이 합당한 보복행위라고 여겼으며 사태가 안정되길 기대했다. 한국팀은 미국팀과 비슷하게 북한의 소행이 한계선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의 보복에 앞서 인내심을 촉구했다. 반대로 일본팀은 한국과 미국이 더 이상의 보복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팀은 설상 그들의 구축함이 직접 타격을 받았을지언정, 그 공격이 일본땅을 침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에 따라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각각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 가능할 뿐 실직적인 위협이 없을 때에는 공격을 하거나 보복을 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참가자들은 일본이 가진 제한점에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참가자들은 일본팀에게 일본의 방위 정책에 대한 오해와 언쟁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의 의사(意思)와 그들이 가진 한계점을 한국, 미국, 인접 국가에 명확하게 전달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우이와 서울에서 각각 진행된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전쟁억제력라는 이점과 사태악화 위험성 사이의 균형이었다. 전문가들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전쟁억제력을 재설립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과 반대로 차세대리더들은 대부분 긴장감 고조의 위험성을 걱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는 참가자의 연령차이 만큼 직업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마우이 회의에는 전쟁억지력 전문가가 훨씬 많이 참석하였다.)

북한의 의도와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효과적이고 조직화된 대응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변상황인식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위의 토론 결과는 토론의 전반적인 요약본으로 토론 참가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세세하게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합의된 문서가 아님을 밝힌다.

한국팀 회의보고서

최정원, 김나희, 임세은, 김소희, 이민정, 노현영 작성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내내 한국팀이 초점을 맞춘 두가지 중요한 사항은 첫째,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격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한국팀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단지 동맹관계를 도발하고자 함인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함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을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삼았다. 또한 이 사태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다.

둘째, 한국팀은 각 나라의 역할과 책임, 공평성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상 북한의 공격을 받아 많은 일본인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국팀은 일본이 자국민을 지키고 북한에 적절한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한반도 자주권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은 중요하지만 일본 자위대와는 집단자위권의 법률해석문제가 명확히 해명될 때까지는 협력이 어려울거라 판단하여서 연락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팀은 미국이나 유엔 쪽과 연락하는데 더 집중하였다.

한국팀은 이와 같은 위급상황이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인명구조나 환경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미국,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사고원인조사가 천안함 사고조사 때처럼 다국적 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한국에서의 전쟁을 방지해야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북한에 보복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문제에 대해서는 팀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몇몇 참가자들은 보복공격을 하면 위기상황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다른 참가자들은 적당한 수준의 보복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다. 이토록 대응문제에 관해서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는 세 나라 사이에 안보위기상황대책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일 세 나라 간의 정보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의도치 않은 위기고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소극적이었다.

한국팀이 가장 놀랐던 점은 일본의 자국 방어에 대한 법적 해석이었다. 일본은 법적 제한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한국인들은 아베의 헌법개정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 차세대리더들은 아베 정부의 그러한 우경화 움직임을 옹호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참가자들은 그들의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과 자위대를 가지는 목적은 일본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한국은 두 나라 사이의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자위대가 정규군이 되어 영토갈등 시에 한국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다.

한국팀은 일본팀이 자위대를 배치시키겠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내보일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일본은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랐고 자위대 배치 허락을 요청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때가 한국팀의 입장에서는 회의 중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다.

시뮬레이션 중 미국팀의 반응 또한 상당히 의외였다. 토론 중, 역사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자 하였고, 동맹국이 공격 당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국팀은 북한측의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공격이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뜻밖이었다. 두 팀 간의 의견차이는 두 나라 사이의 법적 제한점과 외교적 접근방식 차이를 반영하며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은 설상 정보교환을 하는 나라 사이에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국팀은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보 교환의 부재가 가지는 강력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국익을 보호하고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가 정보를 꼭 공유해야 한다.

일본팀 회의보고서

레이첼 이아나코네, 요시후미 이데, 토모코 키요타, 다이치 우치무라 작성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첫번째 장에서 일본은 전반적인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미국과 한국에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미국과 합동공중전투초계 비행를 준비하며 한국 정부에 지뢰 탐지 제공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상선과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조치도 취하였으며 한국에 환경정화 지원과 수색 및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차적인 도발에 일본은 비공개적으로 미국측에 일본 내의 미군기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위기 상황이 고조될 시에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한·미·일 3 국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한 중국에 보낼 세 단계의 성명을 작성하였다.

두번째 장에서 어뢰 공격을 맞은 후, 일본은 정보, 감시, 정찰 초계를 늘렸고 자국영토 보호를 위해서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일본팀은 어뢰 공격이 법적으로 소위 "회색지역"에서 일어났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일본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다시 가했으며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가담하도록 유엔에 권고했다. 일본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하였고 일본의 역할은 한·미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물류 및 정보, 감시, 정찰, 지뢰탐지 등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헌법을 꼼꼼하게 따지는 일본 사정 상, 일본팀은 이 사건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내내 다른 국가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가지는 상당한 오해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 학계, 관련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인접 국가에 일본의 의도와 일본이 가진 행동제약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그러한 오해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하겠다.

차세대리더들과 함께한 삼자대화에서는 세계 2 차대전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문제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토론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다각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전문가 참가자가 회의 중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차분했던 차세대리더들의 회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냉전이 끝나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왔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중국의 군사발전 및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지속되는 일본해역 내 공격적인 행동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태이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헌법 9 조 개정을 포함하여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포괄적인 국가안보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안보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팀 회의보고서

켄트 보이드스톤, 리사 콜린스. 다니엘 포크스, 재커리 호스포드, 톰 레, 제임스 플래티, 네이트 와튼 작성

한미일 삼자관계에 대한 가능성과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은 역사적 분쟁을 둘러싼 한일관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되길 바랐으나, 두 나라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나타났는데, 한·미·일 모두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에서 미국팀이 깨달은 바는 아래와 같다.

한·미·일 세 나라 모두 북한이 공통의 위협이며 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세 나라의 상황인식이 다르고 서로에 대한 역할기대가 달라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절제된 군사적 대응과 함께 정부 공식 답변을 내놓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고 북한 도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좀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가 되어 북한에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랐고 미국팀에게 비군사적인 대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사태진정과 사태간섭이 가져올 결과에 주목하였다. 특히 북한의 또다른 도발이나 중국의 개입을 원치 않았다.

미국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 보기보다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와 중국의 태도 및 그들의 예상 대응에 더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이 가진 법적, 절차적인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한다.

북한의 의도와 의사결정 과정은 베일에 싸여있어 그에 대하여 효과적인 합의 도출이 어렵다. 북한 또한 이러한 애로사항을 알아서 이러한 상황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일 세 나라가 대북관련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와 북한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작은 국지적 도발과 조직화된 전쟁운동 사이에 위치한 애매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한·미·일은 전략적이고 시행가능한 대북 전술, 전략을 명료하게 세워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우이와 서울 회의 결과 비교

아키라 이가타, 김기범, 조나단 밀러, 아이코 시미즈 작성

서울에서 열린 차세대리더 삼자대화 회의는 2014 년 7 월, 마우이에서 열린 전문가급 회의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우이에서는 모든 측이 한국과 일본의 경색된 관계가 삼자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서울회의 중 일본 측의 한 전문가 참가자가 꺼낸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발언이 한국인 전문가 참가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이끌어냈을 때 두 나라의 경색된 관계가 잘 드러났다. 양측의 그러한 토론을 보면서 차세대리더들은 한일협력관계를 지연시키는 감정의 골이 얼마나 큰지 목격할 수 있었다. 차세대리더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토론을 이끌어나가는데 주목하였다. 마우이에서는 삼자협력 실패의 주 원인이 한일 사이의 악감정때문이라고 밝혀진 반면, 서울 회의에서는 한일 협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차세대리더와 전문가 그룹은 북한이 도발해 올 때 전쟁억지력의 이점을 택할 것인지 사태악화를 걱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그룹이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전쟁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한 반면, 차세대리더들은 긴장감 고조가 가져올 사태악화를 더 걱정하여 적절한 보복대응만 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 테이블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두번째 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잠수정을 격추시킨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그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진 못하였다.)

서울에서의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은 한국인 차세대리더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걱정을 어느정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몇몇 한국인 참가자들은 일본 상선을 침몰시킨데 대해서 일본이 북한에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라 여겼다. 일본팀은 시나리오 상의 북한 공격이 2014 년 각료회의에서 결정내린 자위대 “무력사용”의 세가지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세 팀 모두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망설였으며 자국이 아닌 다른 두 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첫째, 한국과 미국의 참가자들이 일본은 자국민이 공격받는 영토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점도 있고, 두번째, 북한 공격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가 각기 나라팀 마다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문가급, 차세대리더급 회의 두 차례 모두 일본팀에서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지 않고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두 시뮬레이션에서 참가자들은 세 나라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각 나라가 서로 원하는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은 중재자가 아닌 두 나라 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하지만 전문가급 참석자들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는 시도가 거의 없었던 것과 반대로, 차세대리더들은 평양과 직접 접촉하는 쪽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팀에서는 주로 납북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북한과의 연락망에 도발에 대해서 전해보겠다고 말했으며 한국팀에서도 끝내 하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비록 한국과 일본 전문가급 참석자들 간에는 명백히 긴장감이 흘렀지만, 차세대리더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역사분쟁 문제를 넘어 한일관계의 진전에 집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논란이 많은 한일상호협정보다는 한·미·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같은 삼자대화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수색구조,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 해적소탕과 같은 전통적 안보 영역이 아닌 분야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방법도 제기되었다. 차세대리더 출신 토론자 중 한명은 한미, 미일 합동작전에 제 3 국의 연락담당자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거론을 하였다.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첫번째 장 (2014 년 가을의 어느 날)

마샬군도 국기를 단 일본의 미츠이 O.S.K. 소속 초대형 M. Star 유조선이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원유 270,000 톤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오고 있었다.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배 우현 아래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선체에 큰 구멍이 생겼다. 폭발로 일본인 11 명과 한국인 3 명, 총 16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항구로 원유가 유출되었으며 선체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음에 따라 생존한 15 명의 선원들은 재빨리 선박을 포기해야했다.

세시간 후, 유조선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부산항은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가득차게 되면서 부산항만공사는 항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항에 정박하거나 부산항을 떠날 계획이었던 선박들은 분초를 다투는 상품 배달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원유는 순식간에 바다와 부산해변으로 퍼져나갔고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기뢰가 폭발했다든지 근해에 기뢰가 아직 많이 깔려있을거라든지 등의 여러가지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불확신한 정보통에 따르자면 폭발 직전에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두 척이 부산항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유투브에서는 'KoreanLiberator(대한민국해방군)'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올린 비디오가 화제가 되었다. 영상에서 한 남자가 자신은 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의 멤버이고 자신이 M.Star 폭발의 주모자이며 압제정권으로부터 남한 사람들을 구출하려는 진정한 해방군을 감금하는 국가안전보안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M.Star 호에 폭발물을 심었다고 밝혔다. 한미일 언론은 비디오 영상을 입수하여 사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유투브 영상의 남자는 다음주 내로 수감자 세 명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폭발이 일어난 곳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USS 조지 워싱턴을 다음 목표물로 삼겠다고 주장하였다. 조지워싱턴호는 매년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위해 이틀 전에 한국에 입항한 상태였고 훈련은 일본도 참관하기로 되어있었다. 영상에서 북한 정부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언론과 한국의 여론은 북한의 개입을 의심하였다. 북한은 일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부산항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첫번째 장 문제

당신은 폭발이 일어난 후 36 시간 후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서 대통령과 총리에게 보고할 조언을 준비하는 회의에 참석중이다. 회의는 국방부, 외교부, 정보부서가 모두 함께 자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도록 제언할 것인가? 5 가지 이상을 제시하라.
2. 정부가 어떤 나라나 기관에 연락을 해야하나? 각각 어떠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할 것인가?
3. 정부가 공개 메세지를 발표한다면, 강조할 세가지 주제를 정하라.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긴급보고 (폭발로부터 48 시간 후)

평양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오늘 부산항구에서 영웅적인 위업을 거둔 대한의 아들들의 애국심에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셨다. 우리 형제들은 무력한 꼭두각시 정권과 미국과 일본 앞잡이의 도발이 먹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계속된 도발을 야기한 것은 계속된 군사훈련을 하는 꼭두각시 정권 때문이다. 계속되는 비난에 미국과 꼭두각시 정권은 군사훈련이 "연례적인 방위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거짓되고 창피한 줄 모르는 궤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의 상황은 북남 관계에서 어느 쪽이 조선반도의 진정한 긴장완화와 평화를 추구하고 누가 위선적이고 도발적인지를 절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남조선과 미국에 조선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그만 둘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계속된 도발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추가 문제

4. 위의 북한 성명이 위의 문제 1,2,3 번의 대응을 바꾸었다면 어떻게 변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두번째 장 (폭발 후 일주일 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날)

유투브 비디오에 등장하여 자신이 테러 공격을 했다고 주장한 남자는 RO 의 조직원, 권민준으로 밝혀졌다. 권민준은 가짜 한국 여권으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1 차 심문결과와 권씨의 집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 전자 첩보에 따르자면 권씨는 북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권씨와 RO 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예정이었다. 한국정부는 M.Star 테러에 북한정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첩보망도 폭발 한시간 내에 부산항을 빠져나간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 두 척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공격 후 부산항 해역 수색 과정에서 불발탄이 발견되었는데 검식 결과, 그 기뢰는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름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항구는 아직도 마비 상태였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해상 보안청 수색구조 팀과 조사팀이 승선해있던 일본인 시신을 수습하고 폭발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였다. 일본은 한국정부에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M. Star 공격에 대해서 대응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에 미국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일본 내 여덟군데 군 기지 중 하나라도 이용될 경우 사전협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신(私信)을 통해서는 부산항 공격을 비난하였으나 공식 성명으로 북한을 맹렬히 비난할 의사는 없어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해군합동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주 내내, 북한도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가까이에 200 발이 넘는 포탄을 쏘아가며 군사훈련을 하였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포탄이 한국쪽 경계를 넘어왔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경계를 높였고 미국은 동아시아로 추가 병력을 이미 배치한 상태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자중해줄 것을 비공식적인 채널로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그만두지 않으면 “핵폭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또한 일본이 훈련 참관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도발행위”이며 “일본도 도발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하는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략로켓트군을 포함한 조선인민군도 경계태세를 높였으며,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미사일 실험이 임박했음을 발표했다.

한국국의 인천함이 한미연합훈련지로 들어서면서 부유기뢰를 건드려 크지 않은 선체 피해를 입고 몇몇 승무원이 부상을 입었다. 수 분 후에 훈련에 참관중이던 일본의

구축함 JS 하타카제가 미확인 어뢰 공격을 받았다. 정확한 소식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지만 적어도 28 명의 일본 선원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이 일어날 때 USS 무스탕이 연어급 잠수함 한 대을 근해에서 포착하여 Mark 46 어뢰를 발사, 격추시켰다. 한시간 후에 공해에서 북한의 차호-노동자구 항구로 돌아가는 네 척의 연어급 잠수함이 포착되었다.

부산항 위기상황 시나리오: 두번째 장 문제

당신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서 대통령과 총리에게 보고할 조언을 준비하는 회의에 참석중이다. 회의는 국방부, 외교부, 정보부서가 모두 함께 자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최근의 북한도발에 대해서 당신의 정부에 어떠한 대응을 하도록 제언할 것인가? 이러한 대응을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의, 조정해 나갈 것인가?
2. 정부가 공개적 메세지를 발표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부산항 사고 초기의 메세지와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보복대응을 한다면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한국팀 시나리오 배경지식

혁명조직(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RO)

혁명조직(RO)는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지하 반란 조직이다. 조직원은 한국 사회 전반에 숨어지내고 있으며 정체를 숨기기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직내에는 상당히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원들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적이 있으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RO 는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2013 년, RO 의 리더라고 의심되는 좌파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 이석기가 친북 내란선동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석기가 구속된 이후로는 RO 의 활동에 대해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는 거의 없다.

사건 맥락

한국 정부는 특히 2010 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참담한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국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두 정부는 사고수습을 위해서 협력하였다.

46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천안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국 정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을 포함한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기간 동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추측이 팽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침몰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 후에 조사팀은 북한의 어뢰가 배를 침몰시켰다는 조사결과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였다. 북한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러시아와 중국의 매스컴도 각기 다른 해석을 들고 나섰다. 유엔안보리는 천안함 사건이 의도된 공격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그 배후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2 명의 군인, 2 명의 시민, 18 명의 부상자를 낸 연평도 포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었다[2]. 한국정부와 군은 즉각적으로 80 발을 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에 추가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해안포기지 근처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정찰을 강화하였다. 포격받는 연평도

[1] 나정주, "천안함을 둘러싼 추측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명박 대통령(Lee Warns Against Speculation Over Cheonan)," Korea Times, 2010 년 4 월 5 일.
[2] "북한 포격으로 시민 두 명 사망 (Two civilians found dead on S. Korean island shelled by N. Korea)," 연합뉴스. 2010 년 11 월 24 일.

영상은 즉각적인 국제적 반향을 불러왔다. 많은 나라가 북한을 비난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 모두 자중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2014 년 4 월 세월호가 전복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사건을 "국내적이고 민간인 문제"라고 단정지었다. 국제사회가 조의를 표하고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해왔지만 한국은 자국의 재난대책본부와 해경만 고려하였다. 상황이 "통제"되었으며, 외부 도움이 "불필요"하다면서 해경은 구조작업 지원제안을 거절하였다. 한국정부는 나중에서야 미국의 수색구조와 복구지원을 받아들였고 MH-60 씨호크 헬기와 MV-22 오스프리 수송기, UH-1Y 휴이스 헬기, 구조인양함 USNS 세이프가드함이 구조구난작전에 투입되었다[3].

만약 M.Star 사고가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100 명이 넘는 한국 해군이 희생당한 2010 년 천안함 사건 때와 맞먹을 정도로 남북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다. 상황 맥락과 미치는 여파가 다르긴 하지만 공격 행위 자체는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최근에 들어 북한의 도발은 직접적으로 남한을 타겟으로 삼아왔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은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의 책임소재는 불분명하지만 사후 조사에서 테러범과 북한의 연관관계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사건대응 때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초기 보도 이후에 한국인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는가? 부산항을 거치는 다른 배는 안전한가? 일본 배가 공격당했으니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현 아시아 정세

박근혜 대통령은 현 아시아 정세를 고속성장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반면 역사 갈등의 증폭과 군비경쟁 가속화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보완적인 인간안보 증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4]하였지만 별다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기 초반에,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왔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앞서

[3] 애슐리 롤랜드, 한국으로 향하는 해군 구조인양함 USNS 세이프가드함(Navy recovery vessel USNS Safeguard en route to South Korea)," Stars and Stripes, 2014 년 4 월 23 일.
[4] 박근혜,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A Plan for Peace in North Asia)," Wall Street Journal, 2012 년 11 월 12 일.

중국에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떠오르는 중요성과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잘 드러낸다. 시진핑 주석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과 중국의 수교 이후, 중국 지도자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진핑의 서울 방문 이후,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 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64.7%로 나타났고, 회담 결과가 한국에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강화가 한국에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각각 69.9%와 63.6%로 나타났다[5]. 더나아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 북한 언급을 삼가한 점 또한 중국이 아직 한국보다는 북한의 편이라는 인식을 강화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평가해도 불안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쉬이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문제들이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괴롭혀오고 있고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은 아베 정부에 대한 한국의 불신을 악화시켰다. 반면, 과반수에 가까운 한국 사람들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에 찬성하며[6], 더불어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는 미국과 함께 해상훈련도 계속하면서 한·미·일이라는 틀 안에서 협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유엔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남수단에서 한국평화유지군이 일본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군과 정부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안보와 위기관리조직 및 대응체제

평시의 국토 방위는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 of Staff, JCS)의 지휘에 따라 한국군이 DMZ 와 영공, 영해를 지키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을 가진다. 한반도에는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US Forces Korea, USFK),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한미연합사령부(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의 미군 사령부가 있다. 주한미군에는 28 만 5 천명의 병사가 소속되어 있다.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해지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방위준비태세(Defense Condition, DEFCON)을 3 단계로 높이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사령부가 되고 미군과 한국군

[5] "한중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Asan Survey on Korea-China Relations)," 아산정책연구소, 2014 년 7 월 9 일.
[6] 5 번 참조.

대부분의 작전통제권을 갖게된다. 하지만 평시와 북한의 전면공격이 없을 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 국방을 책임진다[7].

국군기무사령부(The ROK Defense Security Command, DSC)는 방첩활동과 군사관련 정보 수집과 일부 범죄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방첩, 대테러, 심리전이 주된 업무이며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핀다[8].

국가정보원(The ROK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준비, 분포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 전복, 첩보, 테러, 조직범죄를 막는다. 또한 내란 또는 반역과 같은 범죄조사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RO 와 같은 좌파인사의 혐의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국의 안전 위기대응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시키고 관련 기능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안경찰청와 소방방재청을 소방업무와 해안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 외청으로 개편 설치할 안을 내놓았다.

경제: 부산항의 무역과 상업

부산항은 세계에서 5 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이며, 동북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환적항이다. 연 1700 만 컨테이너를 다룰 수 있으며 100 여개 나라의 500 군데 항구와 교역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무역중심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세계 제 1,2 위 컨테이너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해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무역, 상업, 관광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으로 하루 들어오고 나가는 관광객 수는 평균 8 만 5 천명으로 추산된다.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이 가지 않게끔 위험을 줄이는 방도를 차분히 고안해내기 위해서는 미국 선박회사와 국제해운조직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무역 의존도가 높다. 2012 년 중국과의 무역은 그 해 총 수출량의 25%를 차지하였고 일본은 동북아에서 두번째, 세계에서는 네번째로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9].

---

[7] 5 번 참조.
[8] "주요업무(About CSC – Mission)",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adsc.do?setForward=adscMission&topSeq=00&leftSeq=01.
[9] "대한민국(Korea, Republic of,),"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Country=KR&Language=F.

국내정세: 탈북자와 간첩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률이 15 퍼센트 이하로 나타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높아졌다. 탈북자지원단체가 2012 년에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탈북자 중 80 퍼센트가 대한민국 평균 월급 210 만원에 채 못 미치는 150 만원 이하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실업률은 2013 년에 7.5 퍼센트로 평균 실업률 두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3 년부터 지금까지 49 명의 간첩이 붙잡혔으며 그 중 21 명은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땅을 밟았다. 탈북자로 위장한 남파 간첩을 보내는 북한의 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정찰국, 군 보위사령부, 조선로동당의 조사부(35 호실)가 있다. 남파 간첩의 주된 임무는 고위급 탈북자 암살과 정치공작, 비밀 정보 빼내기 등이다.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일본팀 시나리오 배경지식

혁명조직(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RO)

혁명조직(RO)는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지하 반란 조직이다. 조직원은 한국 사회 전반에 숨어지내고 있으며 정체를 숨기기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직내에는 상당히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원들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적이 있으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RO 는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2013 년, RO 의 리더라고 의심되는 좌파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 이석기가 친북 내란선동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석기가 구속된 이후로는 RO 의 활동에 대해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는 거의 없다.

사건 맥락

한국 정부는 특히 2010 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참담한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국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두 정부는 사고수습을 위해서 협력하였다.

46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천안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국 정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을 포함한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기간 동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추측이 팽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침몰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0]. 후에 조사팀은 북한의 어뢰가 배를 침몰시켰다는 조사결과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였다. 북한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러시아와 중국의 매스컴도 각기 다른 해석을 들고 나섰다. 유엔안보리는 천안함 사건이 의도된 공격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그 배후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2 명의 군인, 2 명의 시민, 18 명의 부상자를 낸 연평도 포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었다[11]. 한국정부와 군은 즉각적으로 80 발을 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에 추가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해안포기지 근처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정찰을 강화하였다. 포격받는 연평도

[10] 나정주, "천안함을 둘러싼 추측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명박 대통령(Lee Warns Against Speculation Over Cheonan)," Korea Times, 2010 년 4 월 5 일.
[11] "북한 포격으로 시민 두 명 사망 (Two civilians found dead on S. Korean island shelled by N. Korea)," 연합뉴스. 2010 년 11 월 24 일.

영상은 즉각적인 국제적 반향을 불러왔다. 많은 나라가 북한을 비난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 모두 자중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2014 년 4 월 세월호가 전복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사건을 "국내적이고 민간인 문제"라고 단정지었다. 국제사회가 조의를 표하고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해왔지만 한국은 자국의 재난대책본부와 해경만 고려하였다. 상황이 "통제"되었으며, 외부 도움이 "불필요"하다면서 해경은 구조작업 지원제안을 거절하였다. 한국정부는 나중에서야 미국의 수색구조와 복구지원을 받아들였고 MH-60 씨호크 헬기와 MV-22 오스프리 수송기, UH-1Y 휴이스 헬기, 구조인양함 USNS 세이프가드함이 구조구난작전에 투입되었다[12].

만약 M.Star 사고가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100 명이 넘는 한국 해군이 희생당한 2010 년 천안함 사건 때와 맞먹을 정도로 남북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다. 상황 맥락과 미치는 여파가 다르긴 하지만 공격 행위 자체는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최근에 들어 북한의 도발은 직접적으로 남한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은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이 시점에서 북한 책임소재는 불분명하지만 사후 조사에서 테러범과 북한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정치적 요인

대응책을 고려할 때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인의 안전보장이다. 초기 보도 이후로 추가적인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는가? 부산항이나 한국에 있는 다른 항을 거치는 선박이 안전한가? 일본은 또한 한국정부와 위기 상황에 협력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한다. 일본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에 타고 있던 일본인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폭발을 검사할 해양구조수색팀과 조사팀을 부산으로 보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몇몇 중요한 국내정치 행위자가 있는데 국내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 아베 정권은 코이즈미 정부 이래로 가장 오래 집권 중이며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위험에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일본 국민들이 집회를 하고 나선 상황이니만큼 아베정권에 대한 당내 지지도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될수록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게 될 것이다. 일본 지도부는 한일 관계나 납북일본인 협상문제, 미일

[12]애슐리 롤랜드, 한국으로 향하는 해군 구조인양함 USNS 세이프가드함(Navy recovery vessel USNS Safeguard en route to South Korea)," Stars and Stripes, 2014 년 4 월 23 일.

동맹,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자국민에게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임을 고려해야한다.

경제적 요인

부산항 폐쇄는 여러가지 염려사항이 있다. 첫째, 하루 10 억불 정도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항을 닫는다는 것은 운송비, 보관비, 수출비가 증가해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쇄기간에 따라 공장과 화물회사는 높아진 단가를 벌충하고자 임금삭감, 해고 또는 가격인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이 가지 않게끔 위험을 줄이는 방도를 차분히 고안해내기 위해서는 일본 선박회사와 국제해운조직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일본 운송회사들은 기꺼이 사태지원에 나설 것이다. 1995 년 부산으로 많은 운송회사가 옮겨가면서, 일본에 있는 많은 항에 화물량이 줄어들어서 각 항구는 하역능력을 줄이거나 시설이 녹슬도록 방치된 상태였다. 일본항의 하역능력은 큰 상관없이 부산항의 물건들은 일본항으로 옮겨가서 부산항이 다시 열릴 때까지 대기하게 될 것이다. 비록 모든 수송선박은 상하이를 거쳐가거나 로스앤젤레스를 아예 떠나지 않는 등 비상시에 향할 수 있는 대안 항구가 있지만 부산항 테러는 세계무역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다.

안보 요인

부산항 위기사태에 대해서 일본이 대응할 때 몇가지 고려해야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는 위태로운 한일관계이다. 한국과 일본은 기밀정보 교환이 가능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을 맺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한국, 일본과 각각 협정을 맺은 상태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협정 추진은 2012 년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인 상호협력체제가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1 년 동일본지진 이후로 미국과 일본은 위기 상황에 즉각 발휘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성립되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러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삼자협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역사적/문화적 요인

M.Star 유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쌍호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쟁점들을 어떻게, 또 얼마만큼이나 제쳐둘 것인가가 일본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쉬이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문제들이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괴롭혀오고 있다. 특히 아베의 임기 동안,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문제는 일본과 이웃나라 간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부산항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잠시 제쳐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베정부는 M.Star 위기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한다. 유조선 침몰 이전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납북일본인 문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일본 정부는 20 세기 후반기동안 북한 정부가 일본국민을 납치했으며 그 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북한정부가 좀 더 명료하게 납북일본인 문제에 관해서 밝혀주길 압박하고 있다. 결국 납북일본인 문제는 북한과 일본 사이를 험악하게 만들었으며 6 자 회담에서 일본이 빠지고 북한과의 외교정상화 전망을 흐리도록 만들었다. 부산항 위기상황 대응시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가 부상한다면, 일본은 납북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하는지 결정해야할 것이다.

부산항 위기사태 시나리오: 미국팀 시나리오 배경지식

혁명조직(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RO)

혁명조직(RO)는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지하 반란 조직이다. 조직원은 한국 사회 전반에 숨어지내고 있으며 정체를 숨기기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직내에는 상당히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원들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적이 있으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RO 는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2013 년, RO 의 리더라고 의심되는 좌파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 이석기가 친북 내란선동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석기가 구속된 이후로는 RO 의 활동에 대해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는 거의 없다.

사건 맥락

한국 정부는 특히 2010 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참담한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국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두 정부는 사고수습을 위해서 협력하였다.

46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천안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국 정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을 포함한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기간 동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추측이 팽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침몰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3]. 후에 조사팀은 북한의 어뢰가 배를 침몰시켰다는 조사결과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였다. 북한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러시아와 중국의 매스컴도 각기 다른 해석을 들고 나섰다. 유엔안보리는 천안함 사건이 의도된 공격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그 배후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2 명의 군인, 2 명의 시민, 18 명의 부상자를 낸 연평도 포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었다[14]. 한국정부와 군은 즉각적으로 80 발을 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에 추가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해안포기지 근처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정찰을 강화하였다. 포격받는 연평도

[13] 나정주, "천안함을 둘러싼 추측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명박 대통령(Lee Warns Against Speculation Over Cheonan)," Korea Times, 2010 년 4 월 5 일.
[14] "북한 포격으로 시민 두 명 사망 (Two civilians found dead on S. Korean island shelled by N. Korea)," 연합뉴스. 2010 년 11 월 24 일.

영상은 즉각적인 국제적 반향을 불러왔다. 많은 나라가 북한을 비난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 모두 자중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2014 년 4 월 세월호가 전복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사건을 "국내적이고 민간인 문제"라고 단정지었다. 국제사회가 조의를 표하고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해왔지만 한국은 자국의 재난대책본부와 해경만 고려하였다. 상황이 "통제"되었으며, 외부 도움이 "불필요"하다면서 해경은 구조작업 지원제안을 거절하였다. 한국정부는 나중에서야 미국의 수색구조와 복구지원을 받아들였고 MH-60 씨호크 헬기와 MV-22 오스프리 수송기, UH-1Y 휴이스 헬기, 구조인양함 USNS 세이프가드함이 구조구난작전에 투입되었다[15].

만약 M.Star 사고가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100 명이 넘는 한국 해군이 희생당한 2010 년 천안함 사건 때와 맞먹을 정도로 남북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다. 상황 맥락과 미치는 여파가 다르긴 하지만 공격 행위 자체는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미국의 다음 대응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북한의 도발의 최근 몇년간 직접적으로 남한을 타겟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일본이었으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두번째, 아직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사후 조사에서 테러범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세번째, 오바마 정부는 중동과 중유럽 위기사태에서 익힌 교훈과 국내 정치환경도 고려해야한다.

미국의 안보와 동맹 반응

대응책을 고려할 때 미국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국민과 해당지역에서 근무중인 미군의 안전이다. 주일미군은 대략 38,000 명과 43,000 명의 군인가족, 5,000 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에는 대략 30,000 명의 병력과 수천명의 민간인, 가족구성원이 있다. 사고에서 미국인 사상자가 있었는가? 사망한 선원은 모두 일본이나 한국인이었는가? 부산을 거쳐가거나 한국의 다른 항에 있는 미국 해군과 상업 선박은 안전한가?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이 가지 않게끔 위험을 줄이는 방도를 차분히 고안해내기 위해서는 미국 선박회사와 국제해운조직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반응 또한 미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으므로 미국은 신중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협의하에 고안해고자 노력할

[15] 애슐리 롤랜드, 한국으로 향하는 해군 구조인양함 USNS 세이프가드함(Navy recovery vessel USNS Safeguard en route to South Korea)," Stars and Stripes, 2014 년 4 월 23 일.

것이다. 폭발이 남한 해역에서 일어났으므로 주한민국이 한국 정부 (또한 일본 정부도)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감안해야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테러공격에 어느정도 관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맹국과 연계한 미국의 정확한 정보 분석이 요구된다. 폭발의 정확한 상황파악과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도 분석에 포함된다. 김정은 정권이 테러공격에 연관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련되어으며 북한에 보복(경제적 제재 또는 다른 수단)을 할만한 충분만 증거가 있는가? 한국, 일본 또는 다른 3 국에 테러집단에 연계된 다른 그룹이나 다른 조직원이 있을까?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관계와 전쟁억지 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의 이목이 미국의 반응에 쏠릴 것이다. 시리아와 우크레이나 위기상황과 명백한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앞서 시리아와 우크레이나 위기 시 보여준 대응에 아시아는 미국이 과연 사태를 해결할 힘이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에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북한과 이 이상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대치상황을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방어적이거나 여느때와 같이 당당하겠지만, 평양에 있는 다른 외교적 연락책이나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동향 – 계획된 테러였는지 혹은 북한도 전혀 알지 못했던 테러였는지 – 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황을 복잡게 만들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중국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거나 압박을 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보와 위기관리조직 및 대응체제

평시의 국토 방위는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 of Staff, JCS)의 지휘에 따라 한국군이 DMZ 와 영공, 영해를 지키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을 가진다. 한반도에는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US Forces Korea, USFK),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한미연합사령부(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의 미군 사령부가 있다. 주한미군에는 28 만 5 천명의 병사가 소속되어 있다.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해지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방위준비태세(Defense Condition, DEFCON)을 3 단계로 높이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사령부가 되고 미군과 한국군

대부분의 작전통제권을 갖게된다. 하지만 평시와 북한의 전면공격이 없을 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 국방을 책임진다[16].

삼자협력과 위기관리

북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군사적 문제와 위기관리와 같은 부분에서 삼자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항의 수색구조나 유조선 폭발로 새어나온 기름을 제거, 여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해결, 세관, 해경, 경찰기관과의 협조 등이 고려 대상이다. 일본과의 도모다치 작전이나 2014 년 4 월에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때 미국이 제공했던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참고할 수 있다.

[16] "한중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Asan Survey on Korea-China Relations)," 아산정책연구소, 2014 년 7 월 9 일.